2026 겨울학기

유럽인문 아카데미

2026. 12. 14. (월) 개강
2027. 2. 19. (금) 종강

〈라이너 마리아 릴케 사망 100주년 기념 기획특강〉

릴케 읽기, 마음에 새기기

김재혁 고려대학교 독문과 명예교수

국내 대표적 릴케 연구자
김재혁 교수에게서 직접 듣는 릴케 즐기기,
릴케를 읽으며 릴케처럼 쓰기,
시를 넘어서 삶 속으로

2026년도 겨울학기 정규 프로그램

2026년도 겨울학기 정규 프로그램 입문강의 강의 세미나 원전강독

	월	화	수	목	금
1교시 14:30 -16:20	**오종현** 루터의 종교개혁을 찾아 떠나는 독일 도시 여행	**임건태** 니체의 『비극의 탄생』에 나타난 예술가 형이상학	**이진현** 그림으로 보는 유럽 과학사 **김주원** 프루스트의 예술론	**신혜수** 음악과 문학 사이 **김현중** 죽음, 미래, 타자 — 레비나스 『시간과 타자』 읽기	
2교시 16:40 -18:30	**김호균** 맑스 정치경제학 개론 **최성만** 미메시스와 인간 II **백주진** 데카르트 『정념론』 완독 — 영혼의 생리학에서 관대함의 윤리로	**김재홍**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을 통해 본 그리스 비극과 호메로스의 서사시 **김종법** 안토니오 그람시의 실천적 삶과 혁명적 사상 **서지형** 『무한한 대화』와 함께 하는 블랑쇼 읽기	**권희진** 비엔나 학파의 철학사상 **서정혁** 헤겔의 정신 철학 — 국가, 세계사, 예술을 중심으로 **허민준**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가? — 『분석론 후서』를 중심으로	**김길웅** 신화와 문학을 통해서 본 고대 그리스 문화 **이승진** 브레히트의 서사극 깊이 읽기 III **최성철** 부르크하르트의 『세계사적 고찰』 원전강독 III	기획특강 온/오프라인 **김재혁** [라이너 마리아 릴케 사망 100주년 기념] 릴케 읽기, 마음에 새기기
3교시 19:30 -21:20	**김 율** 온라인 안셀무스 강독 II — 『진리론』과 『악마의 타락』 **이 철** 인간과 사회를 다시 묻다 — 루만의 사회적 체계 이론 입문 **홍용진** 교회에서 국가로 — 중세 서유럽 정치에 대한 구조적 이해 **강병호** 호네트 읽기 — 『물화』 와 『인정』	**고반석** 온라인 역사로 보는 벨기에와 네덜란드 — 북해 교역의 중심에서 EU의 중심으로 **김명환** 찰스 디킨즈의 소설 — 19세기 영국 산업자본주의 비판 **김종영** 수사학 — 말이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이 말을 판단한다 **김혜란** 체호프 희곡 읽기 — 체호프의 인물, 사건, 엔딩에 관하여 **추은혜** 온라인 타인을 향한 존재 — 메를로-퐁티의 섹슈얼리티 철학	**김대보** 온라인 프랑스혁명 다시 보기 **[텀티칭] 김영아 외** 온라인 뜨거운 지구를 읽는다 — 기후소설과 인류세의 상상력 **김필영** 온라인 캐리커처로 보는 독일 근대사 **박규희** 온라인 악은 무엇인가 — 악의 기원에 관한 서양 고중세의 철학적 사유 **박문정** 온라인 단테의 후예들 — 시대를 건너 다시 쓰이는 『신곡』 **송홍진** 온라인 문학과 미술 — 보들레르 미술비평의 현대성 **심세광** 미셸 푸코의 성현상의 계보학 I **김홍기** 이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 조르주 디디-위베르만 읽기 III **정준영** 플라톤의 『국가』 깊이 읽기 II (5권-10권)	**변선경** 온라인 그녀들의 르네상스 — 여성의 삶으로 읽는 르네상스 **장철규** 아우라, 푼크툼 그리고 들뢰즈 **김동훈** 알렉상드르 코제브의 프리즘을 통해 본 헤겔 『정신 현상학』 —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과 역사의 종말 테제를 중심으로 **양희민** 온라인 후기고대(고대 후기)의 지중해 세계와 로마 제국 —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폴리스까지	**김태수** 극우의 지적 기원 — 바이마르에서 오늘의 유럽까지 **임동현** 잠바티스타 비코의 『새로운 학문』 읽기 **김경연** 온라인 그림책의 서사 방법 **반기현** 베게티우스의 『군사론』 (*De Re Militari*) 원전강독 III **이재영** 온라인 프리드리히 쉴러의 『인간의 미적 교육에 대한 편지』 원전강독 VI

유럽인문아카데미는 유럽 인문학 공부를 통해 우리의 삶과 사회를 성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지성의 공간입니다. 유럽을 거울로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꿈꾸는 비판적 인문학의 마당이 되고자 합니다.

장소 김희경유럽정신문화장학재단
(서울 서초구 매헌로6길 54)

수강료 1교시(2시간)당 1만 원
(10주 강좌 10만 원)

신청 홈페이지 www.aeh.kr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

신청기간 2026년 11. 30. (월) 14:00
~ 12. 14. (월) 10:00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3호선 양재역 하차
- 10번 출구로 나와 08번 마을버스 승차
- 더케이 호텔 후문 하차 후 길 건너 도보로 5분

지하철 신분당선 양재시민의 숲역 하차
- 5번 출구에서 도보로 10분

주 최 AEH 유럽인문아카데미 Academy of European Humanities

후 원 KHK (재) 김희경유럽정신문화장학재단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Hankyoreh Economy & Society Research Institute

2026 겨울학기 강좌소개

기획특강

온/오프라인 동시진행
〈라이너 마리아 릴케 사망 100주년 기념 기획특강〉

릴케 읽기, 마음에 새기기
김재혁 금 2교시(16:40-18:30)

라이너 마리아 릴케(1875-1926)의 삶과 문학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과 불안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점에 주목하면서 그의 생을 살피고 대표 작품을 직접 읽는다. 릴케는 한국 현대시문학사에 큰 영향을 끼친 시인이다. 그 대표적 현장을 살펴본다.

입문강의

역사로 보는 벨기에와 네덜란드 — 북해 교역의 중심에서 EU의 중심으로
고반석 화 3교시(19:30-21:20)

북해 교역의 중심이던 저지대는 어떻게 EU의 중심이 되었을까?
브뤼허의 길드, 안트베르펜의 시장, 암스테르담의 무역선에서 브뤼셀의 EU 본부까지.
부르고뉴·합스부르크 통치, 네덜란드 반란, 벨기에 독립, 식민지와 세계대전을 거치며 벨기에와 네덜란드가 함께 걸어온 길과 서로 갈라진 길을 따라가 본다.

비엔나 학파의 철학사상
권희진 수 2교시(16:40-18:30)

20세기 전반 유럽 각국의 철학자 및 수학자, 물리학자 등 다양한 배경의 뛰어난 학자들이 참여한 비엔나 학파는 프레게, 러셀, 비트겐슈타인 등 기존 철학자들의 사상을 토대로 논리 경험주의라는 철학 사조를 탄생시켰다. 본 강좌는 비엔나 학파의 주요 사상을 학파의 대표적 철학자인 알프레드 J. 에이어의 고전적 저작 『언어, 논리, 진리』를 통해 살펴본다.

신화와 문학을 통해서 본 고대 그리스 문화
김길웅 목 2교시(16:40-18:30)

고대 그리스 문화사는 뮈토스에서 로고스로의 이행을 보여주는데,
문학에서 이것은 기원전 5세기 신화에서 비극으로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강의에서는 그리스 신화의 원천인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딧세이아』 그리고 로고스의 본질을 보여주는 아이스킬로스와 소포클레스의 비극 작품들을 통해 뮈토스에서 로고스로 전화하는 문화사의 흐름을 살펴본다.

프랑스혁명 다시 보기
김대보 수 3교시(19:30-21:20)

프랑스혁명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꾸었고, 무엇을 물려받았으며, 또 무엇을 남겼을까?
프랑스혁명의 주요 사건을 연대기적으로 설명한 뒤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설명하는 우리나라 교과서의 프랑스혁명사 서술은 억지스럽다.
이제 단편적인 서사에서 벗어나 다각적인 측면에서 프랑스혁명을 이해해보자.

찰스 디킨즈의 소설 — 19세기 영국 산업자본주의 비판
김명환 화 3교시(19:30-21:20)

미국의 국민 작가로 마크 트웨인을 꼽는다면, 영국의 국민 작가는 (셰익스피어를 제외한다면) 단연코 찰스 디킨즈이다. 디킨즈는 당대 영국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으며 유럽 전역에서 널리 읽혔다. 이처럼 대중적이었던 디킨즈 작품세계의 진수는 타협 없는 사회 비판과 뜨거운 인간애에 있다.

뜨거운 지구를 읽는다 — 기후소설과 인류세의 상상력
김영아 외 수 3교시(19:30-21:20)

기후위기로 달라지는 세상은 우리의 삶과 이야기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
문학은 이 변화 속에서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 동시대 기후소설을 함께 읽으며 인류세가 요청하는 새로운 서사와 상상력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을 통해 본 그리스 비극과 호메로스의 서사시
김재홍 화 2교시(16:40-18:30)

'시는 역사보다 더 철학적이다.' 시(드라마)는 '사실'이 아니라, '있을 법한 일'을 이야기한다. 비극의 기원과 본질은 무엇이며, 그 효과인 카타르시스란 무엇인가? 비극의 요소들 중 '영혼'에 해당하는 플롯은 어떻게 구성되며, 극중 인물은 어떤 성격을 가져야 하는가? 이를 통해, 비극과 서사시의 본질을 찾아보는 것은 문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안토니오 그람시의 실천적 삶과 혁명적 사상
김종법 화 2교시(16:40-18:30)

그람시는 10여 년간 수감 생활에서 『옥중수고』라는 위대한 저서를 서술하였다.
헤게모니, 시민사회, 국가론, 진지전과 기동전, 전통적 지식인과 유기적 지식인 문제,
마키아벨리와 현대 정당, 남부 문제와 같은 이론과 개념들을 정치적으로 정리한 정치사상서이다. 2027년 그람시 사망 9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그람시를 만나보고자 한다.

수사학 — 말이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이 말을 판단한다
김종영 화 3교시(19:30-21:20)

어떤 말은 사람을 움직이고, 어떤 말은 귀를 닫게 한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고대 수사학의 개념으로 뉴스·광고·회의·가족 대화를 분석하고, 1분 발언을 해 보고,
설득이 어디까지 정당한지 따진다. 끝으로 '풍'이라는 우리말에서 말이 통하기 위한 조건을 찾는다. 말을 가려 듣는 눈과 책임 있게 말하는 법을 기르는 8주의 수사학 입문.

극우의 지적 기원 — 바이마르에서 오늘의 유럽까지
김태수 금 3교시(19:30-21:20)

오늘날 유럽에서 부상하는 극우의 사상은 어디에서 왔을까? 바이마르 공화국의 '보수 혁명'에서 파시즘과 나치즘, 전후 신우파를 거쳐 오늘날 유럽의 극우까지, 한 세기에 걸친 극우의 계보와 변화를 추적한다. 민족과 인종, 공동체와 정체성, 민주주의와 엘리트주의를 둘러싼 생각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새로운 정치적 언어로 되살아났는지 살펴본다.

캐리커처로 보는 독일 근대사
김필영 수 3교시(19:30-21:20)

본 강의는 시대를 반영하는 비판적 사료이자 강력한 정치적 언어인 캐리커처를 통해 독일 근대사를 이해해 보려 한다. 독일 근대사의 주요 주제들을 중심으로 캐리커처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당대인들의 현재 인식과 미래 희망을 읽어내고 아울러 우리의 그것들과 비교해 봄으로써 독일 근대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동시에 현대 사회의 현실을 되돌아보고자 한다.

체호프 희곡 읽기 — 체호프의 인물, 사건, 엔딩에 관하여
김혜란 화 3교시(19:30-21:20)

체호프의 인물들은 말하고 싶어 하고, 살고 싶어 하고, 왜 사는지 알고 싶어 한다.
독백이 되어버리는 말들, 시시한 해프닝이 되어버리는 사건들, 반복되는 일상의 피로와 권태 속에 절망하고 감각이 무뎌지면서도 지금, 여기와는 다른 삶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체호프의 4대 희곡을 함께 읽어본다.

악은 무엇인가 — 악의 기원에 관한 서양 고중세의 철학적 사유
박규희 수 3교시(19:30-21:20)

인간은 왜 악을 행하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선한 신이 있다면 악은 왜 사라지지 않는가? 우리 시대의 물음에 답하기 위해 악에 관한 고대와 중세 철학자의 사유를 추적한다.

단테의 후예들 — 시대를 건너 다시 쓰이는 『신곡』
박문정 수 3교시(19:30-21:20)

이탈리아의 모든 이야기는 단테에서 시작되어 단테로 돌아간다! 페트라르카와 보카치오부터 동화 『피노키오』, 이탈리아 오페라와 미래주의, 아우슈비츠의 프리모 레비, 신사실주의 영화, 그리고 21세기 베아트리체들의 목소리 엘레나 페란테까지.
700년의 지옥과 연옥, 천국을 건너온 10개의 매혹적인 목소리를 따라간다.

그녀들의 르네상스 — 여성의 삶으로 읽는 르네상스
변선경 목 3교시(19:30-21:20)

르네상스 시기 여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나? 지식인 여성과 예술 후원자, 추방당한 여성과 마녀까지. 예술, 권력, 출산, 마녀사냥 등을 통해 남성 중심 역사에서 가려졌던 여성들의 삶을 만나고, 그들의 눈으로 르네상스를 재발견해 보자.

음악과 문학 사이
신혜수 목 1교시(14:30-16:20)

오랫동안 함께 또는 따로 존재해 온 문학과 음악, 이 두 장르의 관계사는 미학사에서조차 엄두를 내기 어려운 미개척의 영역이다. 분명한 한 가지는 서로에게 불가분의 관계이면서 확실히 다른 이 두 영역의 이야기는 수많은 영감과 새로운 해석을 불러일으키면서 현재화되고 있다.
10주 동안 5개의 작품을 통해 그 맥락을 따라가 본다.

루터의 종교개혁을 찾아 떠나는 독일 도시 여행
오종현 월 1교시(14:30-16:20)

독일의 크고 작은 도시 사이로 스며든 종교개혁과 그에 마주한 사람들, 공간의 이야기를 담아 지식과 생각을 살피고자 한다.

그림으로 보는 유럽 과학사
이진현 수 1교시(14:30-16:20)

과학은 천재들의 업적 목록이 아니라, 사람들이 세상을 알고자 해 온 긴 이야기다.
고대 바빌로니아에서 우주 팽창까지, 그림과 함께 따라가는 5주간의 여행.
전공도 사전지식도 필요 없다. 발표도 과제도 없다. 호기심만 가져오면 된다.

아우라, 푼크툼 그리고 틀뢰즈
장철규 목 3교시(19:30-21:20)

한 장의 사진은 우리를 현재, 과거, 미래의 시간으로 초대한다.
질 들뢰즈의 철학적 시간론을 등불 삼아 발터 벤야민의 아우라와 롤랑 바르트의 푼크툼 개념을 조망함으로써 사진이 담지한 시간성을 살펴본다.

강의

알렉상드르 코제브의 프리즘을 통해 본 헤겔 『정신 현상학』 —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과 역사의 종말 테제를 중심으로
김동훈 목 3교시(19:30-21:20)

코제브는 프랑스 고등 학술연구원에서 행한 『정신현상학』 해설 강의를 통해 이전까지 프로이센 제국주의 철학으로 치부되던 헤겔 철학 연구의 물을 지펴냄으로써 프랑스에서의 헤겔 르네상스에 결정적으로 이바지하였다.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현실 사회주의 몰락 이후 역사의 종말을 선언하면서 근거로 제시했던 코제브의 독창적 헤겔 해석을 음미해 보고자 한다.

안셀무스 강독 II — 『진리론』과 『악마의 타락』
김 율 월 3교시(19:30-21:20)

안셀무스는 진리를 '올바름'으로 규정함으로써 서양 진리 개념의 역사에 중요한 획을 그을 뿐 아니라, 진리가 어떤 방식으로 의지에 존재하게 되는지를 질문함으로써 자유의지론의 역사에 커다란 영향을 남긴다. 본 강좌는 안셀무스의 『진리론』과 『악마의 타락』을 중심으로 진리와 자유의 철학적, 신학적 의미를 탐색한다.

프루스트의 예술론
김주원 수 1교시(14:30-16:20)

프루스트라는 산맥의 가장 빛나는 광맥을 찾아서. 예술과 함께 살아가는 일의 의미를 가장 폭넓게 탐구한 작가이자, 현대예술 여명기의 가장 통찰력 있는 목격자,
마르셀 프루스트의 예술론을 읽는다.

죽음, 미래, 타자 — 레비나스 『시간과 타자』 읽기
김헌중 목 1교시(14:30-16:20)

죽음은 삶의 끝일 뿐일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에 불과할까? 레비나스의 『시간과 타자』를 읽으며 고독, 죽음, 미래, 사랑, 타자의 문제를 사유해보려고 한다. 타자는 어떻게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열어젖히는가. 9주 동안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레비나스의 강의록을 천천히 읽고 곱씹어보려고 한다.

맑스 정치경제학 개론
김호균 월 2교시(16:40-18:30)

본 강좌에서는 맑스 정치경제학 개론을 『자본론』의 순서에 따라서 주요 개념을 중심으로 변증법적 서술 방법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정치경제학 강의에서 소홀히 취급되었던 『자본론』 1권의 서문, 소유 개념, 계급 개념 등도 전체 체계에 포함될 것이다. 아울러 현대자본주의를 이해하기 위해 독점, 신식민주의 등을 설명하고자 한다.

헤겔의 정신 철학 — 국가, 세계사, 예술을 중심으로
서정혁 수 2교시(16:40-18:30)

헤겔은 정말 국가권력의 찬양자였을까? 기존의 통념과 편향된 시각을 거두고, 헤겔 자신의 텍스트를 통해 그의 철학을 직접 대면하는 지적 탐구에 초대한다. 인륜성의 완성인 '국가', 자유가 실현되는 무대인 '세계사', 절대적 진리를 감각으로 빚어내는 '예술', 이 세 축을 통해 객관정신에서 절대정신으로 나아가는 정신의 여정을 탐구한다.

『무한한 대화』와 함께 하는 블랑쇼 읽기
서지형 화 2교시(16:40-18:30)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쓰일 수 없는 것을 쓰는 일." 왈백한 문학적 철학, 철학의 문학. 『무한한 대화』와 함께 모리스 블랑쇼의 심연으로 들어간다. 언어의 한계선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문학의 본질. 홀로 읽기 주저했던 블랑쇼의 텍스트와 함께 사유의 여행을 떠나보자.

문학과 미술 — 보들레르 미술비평의 현대성
송홍진 수 3교시(19:30-21:20)

19세기 파리의 한복판에서 한 시대의 저물과 새로운 미술의 태동을 감지한 선구적 미술 비평가 보들레르. 다채로운 이미지로 채워진 그의 내밀한 상상 미술관으로 함께 들어가 보자.

미셸 푸코의 성현상의 계보학 I
심세광 수 3교시(19:30-21:20)

우리는 성에 대해 침묵을 강요당해 왔을까? 푸코는 오히려 성을 끝없이 말하게 하는 권력에 주목했다. 반세기 만에 빛을 본 세 권의 유고가 『성의 역사』의 미완의 장들을 되살린다.
고백, 아이의 자위를 막으려는 의학의 십자군, 양성구유자의 진정한 성까지. 성에서 자기 진실을 찾으라는 종용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고,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후기고대(고대 후기)의 지중해 세계와 로마 제국 —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폴리스까지
양희민 목 3교시(19:30-21:20)

지중해와 유럽 세계의 후기 고대는 오랫동안 '쇠퇴와 몰락'의 서사로 읽혀 왔다.
비잔티움 제국의 시작, 로마법의 집대성, 교육의 존속, 자선 제도의 출현, 고전 철학과 수도원 전통의 융합은 이 시대가 새로운 제도와 사유를 길러낸 창조적 시기였음을 보여 준다.
이 강좌는 '암흑기'라는 오랜 통념을 넘어, 유럽과 지중해 세계의 연원을 다시 묻는 여정이다.

인간과 사회를 다시 묻다 — 루만의 사회적 체계 이론 입문
이철 월 3교시(19:30-21:20)

인간에서 출발하지 않고 인간과 사회를 새롭게 이해하는 루만의 사회이론.
정치·경제·학문·예술·친밀성까지 아우르는 이론의 주요 개념과 관점을 8주 동안 살펴보며,
기존 인문사회과학과 다른 사유의 길을 탐색한다.

잠바티스타 비코의 『새로운 학문』 읽기
임동현 금 3교시(19:30-21:20)

신들의 이야기에서 인간의 역사로. 인류 문명의 기원과 발전에 대한 이탈리아 사상가 비코의 사유를 살펴본다.

미메시스와 인간 II
최성만 월 2교시(16:40-18:30)

이 강좌는 인간이 뛰어난 '미메시스 능력'(모방능력)을 지닌 존재라는 점에 착안하여 그 '미메시스'가 인간의 인식행위, 세계와 관계 맺기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탐구하는 개론 과목이다.

타인을 향한 존재 — 메를로-퐁티의 섹슈얼리티 철학
추은혜 화 3교시(19:30-21:20)

누군가에게 끌리고,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느끼며, 매혹과 혐오가 공존하는 타인과의 관계는 신체적 존재로서 우리의 존재 방식에 대한 물음을 제기한다. 이 강좌는 메를로-퐁티의 철학을 중심으로 섹슈얼리티를 타인을 향한 지향성으로 이해하고, 이끌림과 밀어냄의 긴장 속에서 근원적인 취약성을 지닌 신체가 타인과 관계 맺는 방식과 그 철학적 의미를 탐구한다.

교회에서 국가로 — 중세 서유럽 정치에 대한 구조적 이해
홍용진 월 3교시(19:30-21:20)

중세 서유럽의 역사는 많은 질문을 남긴다. 군대도 없는 교황은 어떻게 황제를 굴복시킬 수 있었는가? 서유럽의 봉건제란 실제로 어떻게 기능했는가? 평화와 질서의 담당자를 자처하던 교회의 보편 질서가 어떻게 국가(state)로 대체되어 갔을까? 여전히 산발적인 스캔들성 에피소드로 점철된 중세 서유럽 역사를 주요한 흐름과 맥락에 따라 체계적으로 파악해보자.

세미나

호네트 읽기 — 『물화』와 『인정』
강병호 월 3교시(19:30-21:20)

『물화. 인정 이론적 연구』와 『인정. 하나의 유럽 사상사』는 호네트가 자신의 인정 개념을 활용하여 서구 맑스주의의 중심 주제였던 물화 현상을 새롭게 해석하고, 프랑스와 영국과 독일의 근대 사회사상을 비교 · 종합하는 독창적인 저작이다. 이 세미나는 이 두 책을 꼼꼼히 읽으며 내용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호네트의 정교하고 독창적인 논증 건축술을 공부한다.

그림책의 서사 방법
김경연 금 3교시(19:30-21:20)

그림책은 어린이 독자를 넘어 어른 독자까지 아우르는 정교한 시각적·문학적 예술이다.
시각적 기호와 문학적 서사는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가? 페리 노들먼의 분류학적 체계로 이 질문을 톺아보며 비평 언어를 확보한다. 나만의 비평 언어를 갖는다는 것은 곧 그림책을 깊이 읽어낼 눈을 갖게 되는 일이다.

이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 조르주 디디-위베르만 읽기 3
김홍기 수 3교시(19:30-21:20)

아우슈비츠에서 비밀리에 촬영된 네 장의 사진은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끝끝내 보여줄 수 없는가? 디디-위베르만의 『모든 것을 무릅쓴 이미지들』을 함께 읽으며 이미지의 증언과 침묵, 역사적 기억의 가능성과 한계, 고통의 이미지를 바라보는 우리의 책임을 묻는다. 사진 이미지 앞에 멈춰 서서, 본다는 것과 안다는 것 사이의 간격을 사유해 본다.

데카르트 『정념론』 완독 — 영혼의 생리학에서 관대함의 윤리로
백주진 월 2교시(16:40-18:30)

슬픔은 왜 때로 달콤한가? 우리는 정념의 노예인가, 주인인가? 데카르트가 생애 마지막에 쓴 『정념론』을 새 번역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는다. 여섯 근본 정념에서 출발해 정념이 어떻게 선과 아름다움, 덕과 자유의 문제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데카르트가 최고의 덕이라 부른 관대함이 무엇인지 따라가 본다.

브레히트의 서사극 깊이 읽기 III
이승진 목 2교시(16:40-18:30)

본 강좌는 브레히트의 『억척 어멈과 그 자식들』, 『사천의 선인』 등의 서사극을 읽으면서 서사극은 전통 연극과 무엇을 달리하는가? 관객들에게 "감정이입을 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연극을 관람하라"는 요구가 변증법적 서사와 생소화 기법을 통해 어떻게 무대에서 구현되는가?
등의 질문을 던지면서 각 작품별로 그 해답을 찾아갈 것이다.

니체의 『비극의 탄생』에 나타난 예술가 형이상학
임건태 화 1교시(14:30-16:20)

초기 사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니체 철학의 전모를 파악하는데 결정적이다.
그래서 이 강좌는 예술가 형이상학이라는 니체의 초기 입장이 집중적으로 나타나 있는 『비극의 탄생』을 깊이 있게 살펴봄으로써 비체계적이고, 불연속적인 니체 사상에 접근할 수 있는 핵심 실마리들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플라톤의 『국가』 깊이 읽기 II (5권-10권)
정준영 수 3교시(19:30-21:20)

『국가』는 실질적으로 인류 최초의 정치철학서이지만,
현대철학자들이 여전히 씨름하는 텍스트이기도 하다. 『국가』는 윤리학, 정치학, 사회학, 인식론, 형이상학, 심리학, 문학 등의 복합적인 주제들을 엮어낸 놀라운 작품인데, 이 강좌는, 한 철학자의 사유가 다양한 주제를 가로질러 어떻게 하나의 일관성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는지를 탐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가? — 『분석론 후서』를 중심으로
허민준 수 2교시(16:40-18:30)

우리는 매일 정의를 내린다. 사랑이, 좋음이, 평등이 무엇인지 제각기 말하곤 한다.
그런데 정의를 내리는 데에는 어떤 조건과 규칙이 있을까? 이 물음에 처음으로 체계적인 답을 내놓은 철학자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본 강의는 『분석론 후서』를 중심으로,
아리스토텔레스에서 후기 고대에 이르는 정의의 방법과 종류를 함께 살펴본다.

원전강독

베게티우스의 『군사론』(*De Re Militari*) 원전강독 III
반기현 금 3교시(19:30-21:20)

제정 후기 로마제국의 군대는 여전히 강력했는가? 닥쳐오는 군사적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였는가? 서양의 대표적인 군사고전인 베게티우스의 『군사론』(*De Re Militari*)을 통해 서기 4세기 로마제국의 군사(軍事)를 살펴본다.

프리드리히 쉴러의 『인간의 미적 교육에 대한 편지』 원전강독 VI
이재영 금 3교시(19:30-21:20)

"인간은 유희할 때만 완전하다"는 말로 현대 사회와 인간의 분열 및 소외를 비판하고 미적, 예술적 교육을 문제 극복의 길로 제시한 쉴러의 『인간의 미적 교육에 대한 편지』는 예술론과 윤리학, 인간학, 역사철학 등 폭넓은 영역을 아우르는 이론적 모색과 성찰에 바탕하여 독창적인 미학을 전개한다. 그의 이론을 원문 그대로 충실히 따라가며 추적해본다.

부르크하르트의 『세계사적 고찰』 원전강독 III
최성철 목 2교시(16:40-18:30)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란 무엇(어떤 힘)으로 구성되고 어떻게 작동하는가? 역사에서 위기란 무엇이고 위인이란 누구인가? 세계사의 행운과 불운은 무엇인가? 19세기 독일어권에 속하는 스위스 바젤의 역사학자 야코프 부르크하르트의 명저 『세계사적 고찰』을 음미하면서
읽어 나가는 원전 강독 수업이다.